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新聞購讀料 壹部(朝夕刊)金五錢 朝刊貳錢 夕刊參錢 壹個月壹圓 參個月先金貳圓九拾錢 六個月先金五圓七拾五錢(郵稅本社負擔)

廣告料 五號拾四字壹行壹圓廿錢 同欄內貳圓 四號九字壹行壹圓八拾錢 貳號七字壹行貳圓半錢 揭載指定料五號每壹行參拾錢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illegible]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雷同性과 데모크라씨 ―日本政局에 感하야―

一

社會發展의 重要한 機能으로서 人類의 模倣性이 항상 動作되고 잇는 것이어니와 模倣性은 곳 雷同性을 낫는 바이다 그리고 아무리 個人의 意識이 發達된 文化人의 社會에 잇서서도 大部의 社會現象은 이 雷同性의 動作에 依하야 適用되는 것이다 다만 偉大 또 拔群한 天才的 人物이 잇서서 이 模倣性 或은 雷同性을 支配함으로 말미암어 社會는 비롯오 順當 또 健全한 發達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로 보아서 『데모크라씨』의 社會에 잇서도 結局은 一人 或은 數人의 天才的 指導者에 依하야 그 社會意識 或은 輿論이란 者가 表現되는 바이오 어떤 境遇에는 一人 或은 少數의 指導者의 意見이 곳 그 社會의 大部人士를 風靡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明白한 事實로서 社會意識의 發生의 形態를 論하는 者의 허롬이 생각할 수 업는 問題이다

二

議會否認의 氣風이 一時에 자못 흥헛섯다 議會否認은 곳 立憲政治이나 民主主義 卽 『데모크라씨』에 對한 不信任이다 正確하게 表現되지 못하는 特權階級의 各種機關들에 依하야 不純하게 製造되는 人造的인 『輿論』에 對한 不信任이다 社會의 根本的 改造를 高調하는 者 往往히 政治的 無關心을 主張하는 것은 곳 『直接行動』의 必要에 因함이어니와 그는 곳 『輿論』의 權威를 不信任함에서 나옴이다 그러나 어떤 社會 어떤 時代인 것을 勿論하고 人類의 雷同性은 드듸어 免할 수 업는 事態이다 이 雷同性이 잇슴에 依하야 大衆의 運動은 改革 或은 向上의 新威力도 되고 배로는 墮落한 衆愚 或은 暴民의 努力으로서도 되는 것이다 이는 社會의 動態를 觀察하는 者의 가장 冷靜한 留意를 要할 者이다

三

英國은 立憲政治의 祖國인 者이다 그리고 個性의 權威를 가장 高調하는 國民이다 그러나 各個政黨으로 因하야 代表되는 國論은 항상 幾個의 統率者에 因하야 創案되는 者이다 오즉 그것이 各個人의 拘束업는 批判性에 依하야 受納됨을 要할 뿐이다 日本의 立憲政治가 아즉도 圓滿한 發達의 지경에 이르지 못하엿거니와 彼等의 政黨政治는 더욱더 만 一人 或은 數人의 意思에 依하야 支配되는 것이다 原敬氏와 가치 見識 手腕이 아울러 卓越하든 人物로서 恒常 絶對多數의 政友會員을 指揮하야 거의 自己의 意思를 忠實히 遵奉케 하는 郞黨과 가티 하든 것은 世間周知의 일이엇섯다 그 外에도 各個의 政黨이 항상 特殊階級의 有力한 人物이나 或은 其他 特種의 關係를 가진 人物들에게 『一任』하는 形式으로서 그의 指導 或은 節度를 밧는 것이 通例이엇섯다 程度의 差는 잇슬지언정 이러한 現象은 列國의 政黨政治에 잇서서 모다 共通한 바이라

四

上述한 諸條件은 곳 現代政治의 特色인 立憲政治 第三階級의 『데모크라씨』에 對하야 彈劾의 소리가 놉허진 理由이다 그리고 日本의 政局이 다만 分合無常한 黨人根性을 暴露하야 아모 政治的 崇高한 理想에 依하야 活動됨이 업는 것은 곳 沒批判的인 雷同性에 依하야 蠢動됨을 表證하는 바이다 政、本의 分離 憲、本 提携 新正俱樂部와 同交會의 形成 政同의 合同 同交會의 再動搖로 다만 朝三暮四的 變動이 잇서 그 自體에 잇서서 이러타 할 個性的 無權威 및 無定見을 表明할새 업는 바는 일은 하야 남음이 잇는 바이다 彼等의 政治的 價値는 다만 特殊한 人物의 意思를 遂行함에 供키 爲한 大多數를 制하는 頭數로서의 意味 박게 업나 함이 애오라지 過言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見地에 잇서서 指導者의 處地에 잇는 者는 또 恒常 純粹한 消義的 動機로서 또 가장 冷靜한 賢明의 態度로서 一般의 民衆에 臨할 것이오 民衆의 一員식을 構成한 各個人들은 또 한각각 一定한 主見에 依한 批判의 態度를 떠나지 아니함을 要하는 바이다 이러한 雷同性과 및 指導者의 態度如何는 社會를 幸福으로도 引導하고 또 誤謬에도 빠지게 하는 것이다

小委員會는 秘密會로 開議

(東京電) 今期議會의 運命의 鍵을 握한 稅整委員會의 小委員會는 十六日午前十時五十分 院內第六委員室에서 開會되엿는데 元田委員長으로부터 小委員會는 懇談會的으로 相互胸襟을 開하고 腹藏이 無히 意見을 述하야 成案을 得하고 십다 云하매 憲政會의 町田忠治氏는 本黨新正俱樂部政府案等의 大體根本方針은 同樣임으로 即時 一致點을 發見할 이 조켓다 述하자 元田委員長은 更히 一致點에 達하기까지에는 黨及幹部에게도 相議할 必要가 有하나 本黨案을 그대로 承認할 必要가 無하다 述하고 町田氏가 更히 吾人도 幹部及黨에 相議할 必要가 잇슴으로 具體案의 作製에 入하라면 本日 或은 明日이 되리라고 雜談을 重複後 元田委員長의 提議로 秘密會에 入하엿는데 會議의 內容은 閉會後 新聞紙에 發表키로 되엿더라

政友會는 藏相糺彈

(東京電) 憲本提携妥協이 成立되리라 함에 對하야 政友會는 稅整小委員會에 參加치 안코 對策을 審議를 繼續하는 中인 바 政府가 地租一分減을 廢棄하고 如한 事가 有하면 此는 政府原案을 根本的으로 顚覆하는 것인 바 此는 專히 政權을 爲하야 主張을 廢棄함에 不過함이라 하야 濱口藏相의 責任을 糺彈하기로 하엿더라

中野正剛氏 兩新聞을 起訴?

(東京電) 憲政會에서는 十六日午後一時부터 議員總會를 開하고 稅制小委員會에 臨할 態度에 取하야는 幹部와 小委員에게 一任하엿는데 中野正剛氏는 過般의 委員會에서 政友會의 志賀和吉君이 自己와 露西亞와의 關係에 對하야 虛構의 事實을 述한 바 此際 斷然 此記事를 揭載한 日本新聞과 [illegible]日日新聞의 當事者를 告訴할 旨를 述하고 諒解를 求하엿더라

對稅制策協議 憲政會

(東京電) 憲政會町田總務는 十六日十時 小委員會가 잇기 前에 院內大臣室로 若槻首相과 濱口藏相을 會見하고 敎育費에 關한 本黨案 四千萬圓과 妥協案 實額三千萬圓의 差額 一千萬圓을 本黨의 要望에 依하야 聲明할 件 地租免稅를 徵稅並立法上 如何히 取扱하여야 할가 하는 二點에 對하야 協議를 重疊하엿는데 更히 小委員會休憩後 若槻濱口安達三相과 會見하고 小委員會의 模樣을 報告한 後 對策에 對한 協議가 잇섯더라

難關은 義務敎育費 結局政府側屈伏할듯

(東京電) 昨日稅制小委員會에서 妥協條件된

一、政府案인 地租一分減削除

二、自作農免稅案의 本黨案을 尊重하고 地租免稅點을 引上할 일

三、義務敎育費一千萬圓增加及 一千萬圓增加에 關한 聲明

을 骨子로 論議되야 妥協案의 成立에 努力한 터인데 右中 第一의 地租一分減削除는 各派에서 그리 異論이 업슬지나 或 憲政會로부터 同黨의 體面論으로 보아 更히 適當時期에 此를 加減하도록 政府에 聲明을 求할는지도 알 수 업스나 이는 與黨間의 問題인즉 큰 論爭에 일르지 아니할지며 다음 自作農의 免租에 對하야는 本黨은 如前히 이를 主張하야 當日의 小委員會에도 이를 主張할 터인 바 結局 免稅點을 三百圓으로 引上하는 程度로 妥協할지며 第三의 點은 最難關이라 할 것인 바 本黨은 依然히 四千萬圓增額을 主張하야 態度가 强硬하고 本黨에서는 一千萬圓만을 讓步할지라도 그 一千萬圓의 追加時期에 對하야 반드시 政府의 聲明을 求할지나 政府가 果然 이 聲明에 應할는지 또 一方에는 海軍과의 關係도 잇서 多少困難한 點으로 觀測되나 然이나 어떠케던지 하여서 妥協案은 成立할 것이라고 觀測된다

政友會幹部會

(東京電) 政友會는 十六日正午 院內에 幹部會를 開하고 協議한 結果 十七日午前十時로부터 幹部와 豫算稅制關稅各委員會調査와의 協議會 午後一時로부터 各委員의 聯合會 同四時로부터 代議士會를 開하고 黨議를 決定할 事及 西原借款整理問題는 該案修正의 意味로 當該委員과 政務調査會役員에게 一任하기로 決하엿더라

進退兩難 政府當局者

(東京電) 稅制案에 對한 本黨과 政府와의 妥協條件은 大體前電과 如하나 義務敎育에 잇서서 本黨側은 殘部一千萬圓을 明年度부터 增額한다는 聲明을 하도록 하려고 하나 政府는 容易히 此를 容認할 意思를 보이지 안코 一方 憲政會에서는 地租一分減은 義務敎育費增額에 對한 財源捻出上 不得已한 일이나 如何間 黨의 多年間 主張임으로 政府는 此에 對하야 엇더케 한다는 聲明을 하여달라고 目下幹部로부터 政府에 對하야 要求中이다 그런

데 政府는 右兩者中 一便만 認할 수 가 업슴으로 挾攻의 狀態에 싸져 此의 酬應策을 苦慮中이더라

本黨委員協議

(東京電) 本黨의 稅制委員 元田、三輪、小川、大石、關、井、原田、齋、關稅委員 高橋、本多、岩切、沼田、淸水等諸氏는 十五日午後七時부터 床次總裁를 中心으로 稅制關稅兩案에 對한 態度를 協議하엿더라

憲本新安協

(東京電) 衆議院稅制整理委員會는 質問을 終了하고 目下 逐條的 審議에 入하엿스나 憲政本黨新正俱樂部三派間에 妥協이 成立되야 十五日午後六時로써 審議를 終了하고 直時 修正案作成에 關한 小委員을 選任後 十六日부터 小委員會에서 妥協案을 作成시키기로 되엿더라

豫約은 不同意

(東京電) 研究會의 靑木、水野、小笠原三氏는 十五日午前十一時半 院內室에 若槻首相을 訪하야 本黨側은 義務敎育의 殘部인 一千萬圓에 對하야 將來國庫에 剩餘를 生한 때에는 此等義務敎育費增額에 充한다는 聲明을 希望하는 旨를 傳하엿스나 首相은 許否의 明言을 하지 안코 考慮後에 回答하겟다고 하엿더라

醬油稅問題 政友會또利用

(東京電) 政友會石坂豊一氏의 追及에 依하야 政府가 樺太醬油稅에 關한 法律案을 撤回함에 關連하야 政府가 更히 朝鮮에 輸出醬油稅拂戾稅를 削除한 結果 樺太에서는 醬油稅免除의 恩惠를 被케 될 것과 右輸出拂戾稅를 受치 못할 不利益의 二重壓迫을 밧는 不合理한 것이 잇는 것을 發見하야 大口喜六氏가 委員會에서 此를 詰問하는 同時에 機會가 잇슬 時에는 此弱點을 攻擊하기로 되엿더라

山室大佐가 日本司令官에

(東京電) 目下 英國의 萬國本部에서 活動中인 救世軍山室大佐는 其任務를 終하고 六月上旬歸國할 터이며 總司令官 [illegible] 大將은 今秋十月初旬 日本에 渡來할 터인 바 同大將來日과 同時에 山室大佐는 少將으로 進級하야 現在日本司令官인 中將에 代할 터이라더라

蕭耀南은 肺病

(東京電) 某處着＝湖北督軍蕭耀南은 十四日午後四時 湖北督軍公署에서 肺病으로 死亡하엿는데 後任督軍에는 第二十五師長 陳嘉謨 省長에는 王廔鈞氏가 就任하엿더라

釜山女子高普 設立期成會組織 建築費及位置外지內定

去十五日 釜山府內有志二十餘名은 釜山道立女子高等普通學校設立發起人會를 濱洲町에 開催하고 來年新學期에는 期於開校키로 하며 建築費及位置問題外지도 大部分內定되엿스며 左와 如히 期成會를 組織하야 同十六日부터 事務를 進行한다더라

◇期成會規約

一、本會는 道立女子高等普通學校期成會라 稱함

二、本會는 大正十六年度에 釜山府內에 道立女子高等普通學校期成을 目的함

但、學校의 位置는 現釜山鎭普通學校를 水晶町附近으로 移轉하는 同時에 該位置及建物로써 充用함

四、本會의 存立期限은 本會의 目的事業을 完成될 時外지로 함 (下畧)

全鮮巡廻童話 宜川에서 大盛況

全鮮巡廻童話를 目的하고 京城에서 떠난 丁洪敎氏는 義州龍川等地를 巡廻하야 去十五日 宜川에 到着되야 宜川基督靑年會少年部主催와 宜川文友會後援으로 午後七時 同會館에서 童話大會를 開催하엿는 바 『七兄弟의 行路』라는 滋味잇는 童話로 千餘兒童에게 無限한 感興을 주고 同九時頃 大盛況裡에 閉會하엿다 하며 丁洪敎氏의 巡廻日程은 如左하며 到着되는 地方의 各團體의 多大한 聲援을 企待한다고

◇日程

十六日 定州 十八日 鎭南浦

十九日 平壤 二十日 黃州 二十一日 沙里院

二十二日 兼二浦 二十三日 開城 (宜川)

明友俱樂部를 靑年會로 改稱 內部外지 大改革

咸南文川郡明岑面明友俱樂部에서는 去十二日 同里講習會內에 總會를 開催하고 從來 俱樂部이든 것을 靑年會로 改稱하는 同時 時代에 適應하도록 內部를 一新改革하며

幹 金秉基 金秉贊 金秉五 常務執行委員 金俊基 金炳善 關閣 金生觀 金承基 金泰熙 金秉善 金[illegible] 金呂縣

◇決議

一、無產子弟를 爲하야 勞働夜學 設置할 일

一、『팜프렛트』를 購入하야 社會科學을 硏究할 일

一、每月二回式 討論會와 講演會를 開催할 일

一、其他事項 (文川)

光州事件에 決定書를 發付 全北民衆同盟과 全北靑聯의 決議

全北民衆運動者同盟에서는 去十四日 同會館에서 常務委員會를 열고 光州靑年會對光州勞働共濟會事件眞狀을 調査하기 爲하야 特派되엿든 金哲君의 事實顚末報告가 잇슨 後 이 여 同事件을 討議한 結果 光州勞働共濟會와 朝鮮勞働總同盟에 對하야 前記全北靑年聯盟의 決定과 類似한 勸告와 決定書를 發表키로 하얏다더라

全北 靑年聯盟에서는 去十四日 裡里靑年會館에서 執行委員會를 열고 光州靑年會對光州勞働共濟會事件을 討議하게 된 바 먼저 本聯盟으로부터 事件眞狀을 調査하기 爲하야 特派되엿든 李龍基氏의 顚末報告가 잇슨 後 光州勞働共濟會에서 光州靑年會에 對하야 過去의 誤解를 回復토록 警告할 것과 決定書를 發하기로 하엿스며 朝鮮勞農總同盟에 對하야는 地方의 局部的 問題를 擧하야 全鮮의 運動線에 攪亂케 하얏다는 理由로 警告하기로 全北民衆運動者同盟과 連帶로 發表하기로 하엿다더라 (裡里)

獵銃으로 射人한 疋田을 懲戒코저 甘浦各團體奮起

慶州郡陽北面甘浦에 居留하는 高利貸金業者 疋田德五郞이 同五柳洞 金判宗(九)을 獵銃으로 쏘아 生命이 危篤하다 함은 旣報하엿거니와 이 事件에 對하야 各團體는 지난 十一日 甘浦勞働共濟會에서 各團體代表들이 모혀 正式으로 會議를 열고 左와 如히 決議하엿다더라

◇決議

一、사람을 獵銃으로 쏘아 生命이 危篤함에도 不拘하고 深邃한 態度로 오히려 暴言을 放하야 朝鮮사람의 生命을 개의 집(犬)보다도 못하게 보아 全民族에게 侮辱을 加하는 疋田을 懲戒할 일

一、被害者의 親權者와 無理하게 和解名義下에서 締結된 契約은 不正當한 것이니 全治療費를 加害者가 辨償케 할 일

一、地方住民의 不安을 除去키 爲하야 危險한 疋田의 獵銃免許를 取消식히도록 當局者에 交涉할 일

◇實行委員

東友團代表 李奭煥 勞働共濟會代表 趙榮吳 慶州親睦會代表 康榮俊 甘浦有志代表 金文赫 五柳里一區代表 林鍾善 (浦項)

◇歲末貧寠救濟 安城郡邑內面 道基里 李益薰氏는 陰歲末을 際하야 當地貧戶五十餘戶에게 白米一斗와 金五十錢式을 寄贈하얏다고

宣言、綱領、規約을 通過한 後 任員選擧와 諸般事項을 決議하얏는데 被選된 任員과 決議事項은 左와 如하며 附近一帶를 巡廻하며 旗幟行列을 行하야 實로 盛況을 呈하엿다더라

◇綱領

一、우리는 互相團結하야 新文化向上에 努力함

一、우리는 智的敎養과 農村啓發의 先驅가 됨

◇任員

執行委員 鄭君和 金俊基 金秉武 金泰元 金秉 烟魯

平壤고무職工 十五日組合을創立

當日勞銀으로 當日生活을 維持하기에 汨沒하는 平壤大同、平安、西鮮、正昌、內德各고무工場職工들은 얼마 전부터 職工間에 友誼敦睦과 生活向上을 圖키 爲하야 職工組合을 創立코자 準備中이든 바 去十五日 當地 薛岩里天道敎堂內에서 女職工二百五十餘名이 會集하야 平壤고무組合創立總會를 開하고 金裕昌氏司會로 經過報告及趣旨說明規約通過任員選擧를 畢한 後 討議事項과 實行條件은 任員會에 一任하고 來賓祝辭와 平壤各勞働團體에서 온 祝文을 朗讀하고 萬歲三唱으로 大盛況裡에 無事閉會하엿는데 任員과 綱領은 左와 如하더라

◇任員

一、組合長 金裕昌 一、副組合長 許觀玉 總務 方元亨 財務 趙泰鍚 理事 韓孝善 外十九人

◇綱領

一、本組合員의 親睦과 團結을 圖함

二、本組合은 무엇보담 敎養과 經濟問題에 置重하야 組合員의 生活向上을 圖함 (平壤)

本報讀者優待 龍川郡

揚市民新理髮館主 崔興儀氏는 業務를 一層擴張키 爲하야 一般設備를 一新하고 特히 本報의 發展을 祝賀하는 뜻으로 自今 一年間 本報讀者에 限하야 料金을 三割引하리라는 바 本局員一同은 氏의 厚誼를 感謝하는 同時 愛讀諸位에게는 優待券을 交付키로 되엿다더라 (揚市)

發會式과 講演

全北內資和友會에서는 去十四日 同會館에서 委員會를 開하고 來三月十三日 發會式을 擧行할 것과 講演會를 開하기로 하얏다는데 演士는 左와 如하더라

金杏奎 裵憲 李龍基 宋柱祥 趙翰朝 (裡里)

鶴浦少年臨總 金化少年會로 改稱

去十日 鶴浦少年會에서는 臨時總會를 同會館에서 開催하고 左記事項을 決議하얏다더라

◇決議

一、本會名稱은 金化少年會로 變하고 鶴沙里는 金化少年會本部로 邑內沙金鶴은 第二部로 其他는 第三部로 함

一、女性問題 一、宗敎問題 一、少年問題 一、會員除名等에 關한 問題 (金化)

會寧郡 靑年總聯盟 去十日創立

咸北會寧邑內各社會團體는 去六日 當地靑年會館에서 會寧郡靑年總聯盟創立準備委員會를 開催하엿는 바 去十日에는 會寧靑年會館內에서 會寧靑年會 會寧女子靑年會 活動靑年會 同志俱樂部 同志會等 五個團體가 會合하야 同聯盟創立大會를 開催하얏는데 當日 被選된 委員은 左와 如하더라 (會寧)

◇委員

金榮秀 李暾夏 權基先 姜期洙 李圭元 兪熙柱 林寬春 羅元奎 兪靜金 鄭麟德

罷業同情金分配

木浦製油工罷業團에 對하야 去二十五日外지 들어온 同情金을 同團員에게 分配하고 同情人士의 氏名을 左와 如히 發表하얏더라

木浦人二十圓 自由勞組三圓 金在用五圓 崔羅順一圓 智島農民組合十圓 智島貨物勞組五圓 船荷組合十五圓 無名氏二十圓 海岸女子講座七圓 潭陽勞組五圓 潭陽洞一女性十圓 羅州錦町人二十圓 光州生三十圓 北倫洞人五十圓 金用異二圓 荷衣小作人會四圓 (木浦)

長城靑年委員會

全南長城靑年會執行委員會는 去十四日 同會館에 開催되야 來二十三四兩日 光州聯合會館에 開催될 第二回總會에 出席할 代表者를 選擧하고 費用은 實費半額을 支拂하기로 決議하얏다는데 代議員은 如左하다더라 (長城)

柳寅秀 姜洪基 盧元錫

例年의 折半 迎日灣漁獲

現狀은 可謂全敗나 將次는 大漁獲豫想

慶北迎日灣靑魚漁場은 産出로 보아 東洋第一이라 할 만한 곳일 뿐 아니라 每年十一月中旬부터 翌年三月中旬外지 畧三個月間은 慶北慶南의 商業經濟를 左右하는 巨大한 財源地로 今年에는 投網以來 去一月末外지 灣內全部産出金이 겨우 二十八萬圓으로 例年에 比하면 半額에 不及하며 漁獲時期도 半期 以上約六期은 지낫다는데 現今狀態로 보면 大失敗 或은 全敗地境이나 그러나 漁業家들의 말을 들으면 方今의 水勢가 漁獲에 適宜함으로 將次 大漁獲할 餘望이 잇다더라 (浦項)

安城驛電話開通

京南鐵道安城驛은 安城電話通話區域以外에 잇서 電話가 不通되야 一般의 不便이 莫大하든 바 安城郵便所의 周旋으로 지난 十五日부터 正式으로 通話를 開始하엿더라 (安城)

泰嶺間自働車開通

平北嶺美泰川間을 通行할 嶺泰荷物自働車는 大正十四年十二月二十八日付로 許可되엇는데 自働車未着으로 于今것 開通치 못하다가 去十四日 自働車一臺가 先着하야 十五日에 試運을 하엿다더라 (嶺美)

樂友團新春音樂

元山樂友團主催와 本社元山支局後援의 新春音樂大會는 正月初一日 同樂座에서 本社元山支局長 趙鍾九氏의 開會辭가 잇슨 後 樂友團 總在元氏司會로 器樂聲樂等 滋味잇는 푸로그람으로 一二部에 分하야 快興을 極한 後 樂師慰勞宴外지 잇섯다더라

長城勞組 合宿所建築 勞働夜學室外지

全南長城驛前에 잇는 勞働組合은 出生後 畧一年間 各方面으로 組合員의 福利를 爲하야 宿泊所建築에 努力하든 바 近日 計劃이 具體化하야 共同合宿所와 勞働者夜學室을 建築하기로 決定하고 陰正月元旦에는 組合員總出動으로 有産家를 訪問하고 同情金을 得하야 約千圓豫算으로 着手하얏다더라

麻谷婦人貯蓄會 鷄卵五個式모은것이 現在四百八十餘圓

金浦郡霞城面麻谷里에서는 該里有志閔丙燾氏의 發起로 大正十四年一月에 婦人貯蓄會를 組織하고 一般會員에게 副業을 獎勵하는 同時 貯蓄心을 養成키 爲하야 每月二回로 分하야 一回에 鷄卵五個式 收合하야 同會에서 此를 共同販賣한 後 其代金을 同會에 貯蓄케 한다는데 現在會員이 六十二人으로 去一月末日外지 貯蓄總額이 四百八十餘圓에 達하야 成績이 매우 良好하다더라 (金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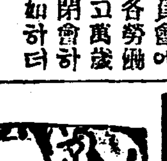
林業講習開催

京畿道金浦郡森林保護組合에서는 一般에게 愛林思想을 普及키 爲하야 本月十九日부터 林業講習會를 開催하고 管內各面으로 巡回講習을 식힐 터이라는데 講師는 趙忠鎬 李敎昌兩氏로 決定되얏다더라 (金浦)

平壤洋襪工場役員 懇親과 擲柶會

平壤洋襪織造界에 第一位를 占한 大元、慶興、世昌、大同、恒信各商會役員一同은 友誼를 敦睦하기 爲하야 去十五日 當地 大同門內 大安館에서 新年懇親會를 開하고 役員一同의 親睦과 來賓中 方濟、金閔楠兩氏의 祝辭와 禁酒禁煙貯蓄組合勸誘에 對한 吉重鉉氏의 功實한 말이 잇난 後 餘興으로 擲柶會를 開하고 一等當選者에게는 朝鮮日報一個月讀者券을 賞與하엿고 其他 數種의 餘興도 잇섯다더라 (平壤)

近德普校의 不充實



投稿歡迎 十四字 五十行 以內 住所氏名明記

◇民族運動以後 我朝鮮에 火焰가 튼 向學熱이 沸騰하야 집을 따러 到處에 各種의 敎育機關이 時를 다투어 蜂起하얏다 우리 三陟一鄕에도 時機의 恩澤을 입어 近德公立普通學校가 設立되어 英才育養의 使命을 띄고 이미 社會에 奉仕한 지 三四星霜을 經하야 왓다

◇出生當時에는 一般學父兄과 斯界有志諸位가 血誠의 極을 다하야 始終一貫으로 勇往突進의 努力가 可히 刮目할 바 이엇섯다 그러나 不過幾年한 今日에 至하야는 거의 放棄狀態를 呈하야 現狀維持에도 오히려 不足한 感이 업지 안타

◇該校는 郡의 中央地인 近德面에 在하야 隣接한 三四面을 學校의 區域으로 하엿는 故로 年年히 就學코저 志願하야 오는 兒童은 이로 勝算할 수 업시 增加되나 校舍의 狹窄으로 全部收容키 不能할 뿐 아니라 現在學生조차 卒業期限이 四年制이기 때문에 所謂 卒業을 하게 되더라도 압흐로 더욱 修學코저 하는 兒童들은 엇더한 他校通學의 途가 업슴으로 도리혀 落望失膽에 陷하게 되여 街路에 彷徨하면서 現世의 落伍人이 되여가는 情況과 學父兄의 無責任함을 怨望嘲笑痛罵하여 마지 안는다

◇이 엇지 畵虎不成에 反爲狗子의 格과 무엇이 달음이 잇는가 그뿐 아니라 現在 二敎室로써 四學級을 置하고 校長外一人으로써 全部를 敎授하니 敎鞭을 잡는 者 아모리 熱誠을 다한다 하더라도 此로써 到底히 敎授의 徹底를 期하기 難함은 推測하기 無難하다 諸氏는 每日新聞紙上으로 通하야 全鮮各地의 校舍增築問題이니 學年延長運動等을 보지 못하엿는가

◇二十世紀는 進取의 勝利者를 期待한다 一般父兄이시여! 協贊會委員諸賢이시여! 우리의 制度가 남과 갓지 못한 오늘날에 育英事業에外지 엇지 等閑視할 것인가 向上하야 가는 第二國民은 朝鮮의 將來를 메질 일군이다 비노니 오즉 自進自立하야 學校의 內容充實에 速速進行함이 잇기를 바란다 (傍觀者)

地方學界

驪州夜學盛況

▲驪州郡北內面石隅里에서는 當地有志柳寅城氏 發起로 昨年十月一日부터 同里一三七番地 張裁縫家에 勞働夜學會를 設立하고 一般無產兒童을 敎授한다는데 現今講習生이 二十餘名이라 하며 講師는 李鍾復 李起龍 閔泳麟 閔泳鳳 四氏라 하며

▲同郡同面五鶴里에도 有志金在賢 金世顯 金爀培 崔鍾泰 四氏의 發起로 昨年十一月五日부터 勞働夜學會를 當地 金壽培家에 設立하고 前記四氏가 熱心敎授한다는데 現今講習生이 十二名이라 하며

▲同郡同面內龍里에도 昨年十二月一日부터 勞働夜學會를 設立하고 李鍾復氏 單獨으로 熱心敎授한다는데 講習生이 現在 十餘名이라 하며

▲同郡同面川松里 有志 白南基 李啓夏兩氏는 當地에 一般無產兒童을 爲한 敎育機關이 無함을 恒常 遺憾하던 바 昨年十一月五日에 勞働夜學講習所를 비로소 設立하고 二部에 分하야 敎授한다는데 一部는 講習生十七名인 바 崔楊玉 權南山兩氏가 擔任敎授하며 又一部는 講習生三十二名인데 金明七 白龍基 白南珽 三氏가 擔任敎授한다 하며 이에 對한 經費는 모다 講習生이 負擔한다더라 (驪州)

虎溪學院新設 聞慶

慶北聞慶郡虎溪面龜山里는 近百戶에 達하는 寒村일 뿐 아니라 四方으로 學校가 멀어서 無産兒童은 배우고저 하나 배울 곳이 업슴으로 洞民들은 엇지하면 조흘가 恒常 憂慮하든 中 同里金鍾哲氏가 自己自宅에 學院을 設立하고 日本人 福田을 請하야 去一日부터 敎授케 한다는데 現在 生徒는 三十餘名이라 하며 一切經費外지도 自擔함으로 洞里一般人士들은 氏를 稱頌한다더라 (尙州)

永明夜學 永興郡隱讀面

時里義勇團靑年會에서는 去十二月中旬부터 男女二十餘名을 收容하야 夜學을 開始한 結果 成績이 매우 良好하다더니 同夜學의 敎授는 金源一、申載鉉兩君이 擔任하야 無報酬로 努力한다는데 將來가 매우 有望하다더라 (領興)

◇道昌靑年夜學會 咸南文川郡都內面道昌里에 잇는 道昌靑年會에서는 農村인 同地無產靑年의 敎養과 女性運動의 助長을 目標로 夜學會를 開催하고 男女學生數十名을 募集敎授中이라는데 同靑年會幹部 金鍾甲、李容煥、元容淮等 諸氏의 熱誠잇는 活動으로 其成績이 頗히 良好하다고 (文川)

◇龍淵夜學漸昌 价川郡北面龍淵里에서는 그곳 有志들이 農閑期를 利用하야 農民들에게 現代必須한 知識을 敎養코자 去年九月下旬부터 吉文奎氏家에 夜學會를 設立하고 以來 主務者側의 不斷한 活動으로 今日에 至하며는 學生이 二十餘名에 達하야 頗히 良好한 成績으로 進步하는 現象이라 하며 敎授科目은 普通學校程度이라고 (价川)

特志美行

◇四百圓拾得還主 慈城郡南宮面長沙洞에 사는 韓文洋行三五八號自働車運轉手 李容錫氏는 運轉室에 떠러진 紙貨四百圓을 拾得하야 濟水巡査에게 委囑하야 主人을 차자 주엇다더라 (濟川)

◇年末白米分給 黃海道延白郡延安面延城里 金敏泰氏는 陰曆歲末을 際하야 洞里貧寠者와 小作人 七十餘戶에 精白米一斗式을 分給하얏다고 (延安)

◇斗落峰下侍墓老人 井邑郡井邑面水城里 李啓豊氏는 昨年 그 慈親喪을 當한 後 斗落峰 그 墓下에 土窟을 營하고 于今 侍墓不懈한다고 隣近이 稱道한다는데 氏는 現今 六十三歲의 老人이라더라 (井邑)

◇過歲貧戶救恤 黃海道松禾郡蓬萊面永橋里人士 尹京煥 朴光鉉 李承明 張炳旭 諸氏는 里內生活困難으로 陰歲末에 慘憺하게 지내는 여러 사람을 救濟키 爲하야 各自 捐金하야 白米一斗와 石魚一級式을 分給하엿다고 (松禾)

南朝鮮新春男女聯合懸賞雄辯大會

時日 二月廿七、八兩日午後七時半부터

場所 順天旱町勞働學院大講堂

施賞 一等으로부터 三等外지

主催 東亞、時代、本社 三順天支局

後援 順天靑年會、順天勞働靑年會、順天女子靑年會、順天基督靑年會

對島一五、基隆二九三、博多三〇〇合計七七六一九▲小豆對馬五〇【十一月】

【道外移出】 白米淸津二二二、其他七、合計二三九、大豆釜山一三、京城四〇、合計五三▲小豆京城四三〇 (元山)

元山驛貨

元山驛貨物取扱所에서 本月上旬中 取扱貨物은 發送總高 一千三百三十九噸 同收入 八千七十一圓八十八錢、到着總高 三千二百三十六噸인데 一日平均發送은 百餘噸 到着은 三百餘噸이며 主한 發着貨物은 如左하다더라 (單位噸)

發送 生物八一、鹽魚七七、乾魚九六、穀類一七、米一八、雜穀四九、木材六九、軍用二二〇、局用品二六、菜九〇、其他五八六

到着 米七八六、麥七九、大豆五二五、粟四二〇、細叺二二二、薪炭八九、木材一一、石炭三七〇、黑鉛三〇、雜貨二六、軍用品三一二、其他三六三 (元山)

海蔘輸出狀況

元山의 海蔘去來狀況은 例年中國方面 陰曆正月用으로 年內二回의 大量輸出이 每年恒例이엇섯는데 本年은 一月下旬頃에 一回分으로 一萬五百斤 價格 一萬八千圓어치를 輸送하엿고 第二回分은 滿洲市場에 賣買不振으로 全然 輸出치 못함에 至하야 停滯品이 目下 相當히 잇는 形便이나 海蔘自體가 大한 것은 多少去來가 잇고 小한 것은 賣買가 되지 안음으로 現下의 時勢는 最上一百八十目、中一百五十五六目、下一百二十目假量이라더라 (元山)

群山內外米在高

群山港十二日現在의 玄米在高는 九萬一千四百二十二叺인데 九日現在보다 一千五百五十四叺의 增加이고 外米는 舊正初로 因하야 九日보다 一千五百三十九袋의 減少 白米는 九日보다 一千五百叺의 減少로 一千五百五叺이라 하며 이것을 倉庫別로 보면 左와 如하다고

【玄米部】 四三、九七一叺 信託會社 一二、二一六叺 商銀支店 一、七八五叺 細川倉庫 一九、六六五叺 十八支店 三、二八五叺 朝銀支店 九、〇二二叺 東拓倉庫 一四七八叺 朝日精米所 計九一、四二二叺 九日現在八九、八六八叺 增加一、五五四叺

【外米部】 六、九一四袋 信託會社 一五〇袋 十八支店 三六袋 東拓倉庫 二三三袋 朝日精米所 計七三三三袋 九日現在八、九六四袋 減少一、五三八袋

【白米部】 六〇〇叺 信託會社 二五〇叺 鮮銀支店 七七叺 東拓倉庫 五七八叺 朝日精米所 計一、五〇五叺 九日現在三、〇〇〇叺 減少一、五〇三叺 (群山)

地方經濟

一月中元山出穀

穀物檢查出張所의 調査한 一月中 當地로부터 日本에 輸出及道外에 移出한 米豆의 發送地와 數量은 如左하다더라 (單位叺)

【日本輸出】 玄米大阪四四〇、神戶四八〇、敦賀一〇七二〇、宮津六三四〇、舞鶴五二五、伏木二一〇、江之浦四九一〇、名古屋七五〇、下關一五 合計二八三五〇 ▲白米大阪一〇〇、神戶八〇、敦賀一二二八、宮津一八五〇、舞鶴一五〇 合計三六〇八 ▲大豆大阪七〇八〇、神戶六〇五五、敦賀三〇六三三、宮津一八五〇、舞鶴六五〇、伏木二三八〇、門司四七〇〇、小豆島一九四〇〇、尾之道三六〇〇、宇品六〇八九、尾五五

元山上旬檢穀

元山穀物檢查所에서 本月上旬中의 米豆檢查數量은 玄米三千七百七十四叺 白米四百四十四叺 大豆一千八百五叺에 至하엿슴으로 例年에 比하야 매우 閑散한 貌樣이라더라 (元山)

北院懸賞擲柶

价川郡北院에서는 來廿二日 時代日報北院分局主催로 新正의 興味를 加코저 하야 懸賞擲柶大會를 開催하고 方法은 便戰勝負에 따라 個人賞으로 一二三等의 等級을 懸賞한다더라 (价川)

玉山擲柶

尙州郡功城面玉山市에서는 朴喜年 崔鵬昆 金麟龍 三氏의 發起로 陰曆正初를 期하야 來二十一日午前十時부터 金麟龍氏方에서 擲柶大會를 開催한다는데 會費는 三圓이라더라 (玉山)

奉天의 擲柶

奉天僑居同胞들은 新年去國의 懷를 敍코저 正月一日夜 當地十間房 鄭陽軒에 擲柶會를 開하고 四十餘名이 赤白兩軍에 分하야 擲柶한 結果 赤軍司令 劉景錫氏는 敗하고 柳錫永氏의 白軍一隊가 大捷하야 山珍海著으로 犒賞하얏다고 (奉天)

禮山査經會

忠南禮山美監理敎會에서는 來十五日부터 一週間 査經會를 開催한다는데 公州西洋婦人을 請邀하야 工夫한다고 (禮山)

◇重遠靑年講演準備 平南价川郡中西面 重遠靑年會는 昨年度創立한 後 同會의 經營으로 數十個所의 夜學會도 잇섯고 其他社會各方面에 多大한 貢獻이 만하오든 바 今年에 至하야는 靑年運動이 漸次 委靡不振하고 沈滯狀態에 잇슴으로 同會幹部들은 時代思潮에 伴하야 一層奮鬪코저 方今 京城에 잇는 申興雨氏를 請邀하야 講演會를 開催하라고 交涉中이라더라 (价川)

地方人事

▲李顯榮氏(本報禮山支局)는 三日間 豫定으로 社務를 帶하고 十四日午後二時車로 入京 (禮山)

◇寸鐵◇

◇【沙里院】 黃海道에는 戰寧北栗에서 東拓에 對한 小作爭議가 始作되더니 鳳山에 個人地主의 말성거리가 또 생겻다 黃海道에도 小作爭議가 늘어가는 모양

◇【木浦】 製油工이 罷業한 後에 新入工이 잇다고 그것은 反動分子라 하야 乞人團이 憤起하야 鐵拳制裁를 하얏다 이것은 乞人團의 義憤이다

◇【義州】 本夫와 三子를 두고 姦夫와 逃亡한 女子가 잇다 이것도 그 姦婦의 口로 말하라면 『사랑의 불쫏이라 올다 그리하얏다』고 하렷다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Wednesday, Feb. 17th, 1926.

EDUCATION From The Little Yankee

V

Academic *degrees* are conferred by authority of the state, delegated to the institution in its charter. Honorary degrees are sometimes conferred on persons who have distinguished themselves in some way. The value of a degree depends to some extent on what college or university confers it, for there is a great lack of uniformity in the different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some are more rigorous than others in their requirements. A degree can not be put to any important use without stating where it was obtained. Information to the effect that academic degrees are sold in the United States for a consideration is circulated in some foreign countries, and a few people are credulous enough to believe it. There may be a few swindlers selling bogus diplomas to ignorant people, just as there are crooks that make their living by selling "gold bricks" or by forging notes or by getting worthless checks cashed, until they get caught at it. Such a diploma, in any case, would be of no value to the unfortunate purchaser.

The location preferred for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is on the outskirts of some rather small city. The *campus* is generally a pretty large plot of ground, with open spaces and grass between the buildings, like a park.

The *instruction* in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is given partly by means of lessons prepared in text-books and recited in class and partly by means of lectures. The lecture courses are supplemented by reading in the library or by laboratory work. Each student has three classes a day, as a rule, and he's expected to devote three hours a day to each of them-one hour in the recitation room or lecture room and two hours of study or laboratory work.

英文欄 米國敎育制度 (五)

十一歲日少女를 凌辱한後殺害

電話로妙巧히誘引하야

혐의자로세명을검거취됴 한명은일인두명은조선인

전북 전주고사뎡 장의원원장장련십랑(全北全州高砂町長醫院院長長連十郞)의 둘재딸『이도리』는당년십일세의 심상소학교 삼년생인데 지난십일 오전열시 이십분경에 그학교로뎐화(電話)가온바 본가에긴급한일이잇스니 즉 권귀『이도리』를곳보내달라함으로 그담임 촌상(村上)녀선생은 사학중임도 불구하고 곳돌려보냇섯다는데 그부모는 그날오후 네시가되도록 그딸이 오지아니함으로 학교로 뎐화하얏더니

학교에서 는오전십일시경에 도라갓다함으로 곳경찰서에 수색원을데출하고 병원의현상으로 시내각처에 광고하얏스나 행방을 묘연히 알지못하든중 지난십일일 오후두시경에 시내 대정뎡송촌(市內大正町松村) 고보교사긔산구(高普校書記山口)두사람이 이동면검암리반대산(伊東面劍岩里反大山)산등으로 산양을갓다가『이도리』의 시톄를

발견하고 곳경찰서에뎐화하얏슴으로 경찰서장과 검사 정공의등이 현장에출장하야 시톄를검시 하얏다는데 그아이의 만도로 목을세번이나 감엇스며 소도(小刀)로목을 두곳이나 찔럿고 머리에는두곳이나 돌로친 상처가잇스며 국부는 능욕을당하야처녀막이 참혹히 파열되얏다는데 그시톄는 전주의원(全州醫院)에서해부하얏스며 혐의자로는 장련십랑(長連十郞)의

생질 십구세의 청년과그집고용인 김현광(金玄鑛)과 인력거군 뎡한식(丁漢植) 세사람을테포취됴중 이라는데 아직그진상은 판명치못 하얏다더라(전주)

債鬼를避하고저 强盜마젓다고虛僞告發

자긔의손을칼로찔으고서 강도마젓다고고발한부인

개성만월뎡(開城滿月町)삼백십일번디의寡婦에 주소를두고 류긔등속을 행상하고잇는배명주(白明珠)(五)라는녀자는 지난십일일오후 두시쯤되여 개성군상도면 회동리락타악(上道面灰洞駱駝岳)이라는 고개에서 강도를맛나 가지고잇든 돈 오십원을 빼앗기엿다고 개성서에 고발을하매 동서에서는 시간을 지테치 아니하고 즉시자동차로 서원이출동됴사를 하게까지 하얏스나 사실 이아무리보아도의심스러워보이며 강도를마진 것갓지아니함으로 건과 피해자를 소환하야 엄중히 사실 여부를 심문하야보앗더니 드듸여 유력금융을당하야 부채는 만흔데갑흘길은 망연하고 채권자들의독촉은 성화가터러서 할수업시최후의계책으로 그처럼강도를마첫다고하면 채권자들도 얼마간독촉을 덜할가생각하고서 허위고발을하얏다고 자백하야 동서에서는즉결처분으로과료십오원을 명하얏다는데그녀자는허위고발을할때에 강도에게피해를한것이라고 자긔의손목여러곳을 참혹히칼로 란자하기까지 하엿다더라(개성)

印度青年 利川到着

십팔일은경성에

자뎐거로 세계를 일주하는인도(印度) 청년두명은 십륙일오전 열한시반경에 본사장호원 지국(本社長湖院支局) 총무 한필수(韓弼洙)씨의 선창과 다수한군중의만세삼창에 잘가라는 인사를바드면서 그곳을 떠나동일오후여섯시경에 리천(利川)에도착되야리천청년회(利川靑年會)의안내로려관에 이르러수이게 되엿는데 십칠일오전 구시에는 리천을떠나 경성으로 향할터인바 그동로는 수원(水原)이 될는지 광주(廣州)가될는지 모르겟스나 두곳중에서택하야 하로를숙박하고 십팔일 오후세시부터 다섯시까지의 두시간사이에는 경성에 도착될예뎡이라는데 동로의상세는 명일지상에보도할터이더라(리천 지국뎐화)

動物虐待防止會

위원회의두가지결의

동물학대방지회 조선본부(動物虐待防止會朝鮮本部)에서는재작년중에 재경 서양부인구락부의긔부로 시내 고시뎡(古市町)에 우마음수조(牛馬飮水槽)를 설치하야 이래우마에게 다대한 편익을주어왓든바 경성부 당국에서는 작년중에 돈일천원의비용으로 동대문외성수(東大門外城閒)와 서소문외(西小門外)다란장(貯炭場)부근과 황금뎡 칠뎡목과 신룡산십팔은행압헤 음수조를설치하얏고 서소문안은 언덕이 조금놉다하야 우마의통행이 편리하도록하얏는데 동회에서는 경성부당국에 감사장을보낸것과 구주(歐洲)에서쓰는 선전문과 기타용어를번역하야 널히선전할것을 지난십일 위원회에서결의하얏다더라

妻는割股하고 弟는出血注入

그래도아모효력업시 필경은죽고말엇다고

본적을 경성부삼개(京城府麻浦)에 두고전북정읍군(全北井邑郡)정읍면 원죽지리(井邑面元竹池里)에현주하는최병규(崔秉圭)(三)는 작년이월경에우연히병이드러서 시골집을 떠나경성총독부 의원에서 치료하든중 병이점점위중함으로 결국은 그아오의 팔뚝에서 뽑아낸피와그안해의 사랑으로 베여낸다리살까지로도 구원치못하고 작년음십이월

이십오일 에세상을떠난바그가족들은 치상하고 정읍으로 도라와서 그아오와안해가 비통의테혼미에 싸이여 방금위석신음중이라는데 그 내용을자세히 드른즉 전긔최병규군은칠년전에 정읍에와서 종교로는보련교를 신앙하나 일방으로는상업을 경영하야 수다가권의생활을 유지하든중 작년이월경에륵막염(肋膜炎)에 걸리여 한방(漢方)으로는치료의효력이

업슴으로 동년음십이월 이십일일에 경성총독부 의원에 가서치료하되병이점점위중하매 그안해리효정(李孝貞)(三)은자긔의왼편다리에서두번이나살을 베여내서란도하야 그남편을 먹이고그아오최병호(崔秉昊)(二四)군은 자긔의오른편넙적다리 피를 빼여한되가량의 피를내여서 그형을 먹엿스되 일원한지나흘만에그만

그병원에 서사망하매그의가족들은 하월업시 치상하고 정읍으로 도라와서 그아오는피를흘린 팔을동여매고 복약중이오그안해는 살베여낸다리가덜독이 심하지마는 그남편에게서난어린아들을 위하야 그알흔것과슯흔것을 억케하는중 이라더라(정읍)

重傷當한少年 治療費問題

가해하일본인은 일백오십원을고집

경주군양북면감포(慶州郡陽北面甘浦) 대금업자(貸金業者) 필뎐총오랑(疋田總五郞)이 나무하는아이를사슴으로알고삼사발을 연발하야 탄환이 전신에 박혀생명이 위독하다함은 긔보하엿거니와 피해자김관종(金冠宗)은현금 대구자혜의원무료실(大邱慈惠病院無料室)에서 신음중이나 돈이업서 완전한 치료도밧지못하고경각의일명(頃刻의一命)을 다만 하날에게만 부탁하고잇는 그의 참상을보고 만강의동정과 고향으로급히도라와십일오전날 원한는중은 그부친김영조(金永祚)의현데 두사람은 지난구일에 두시경에 가해자필뎐에게보가서 그사정을말하고치료비얼마를관출해주면당분간목숨이잇슬동안은 치료나하여보겟다고한즉 필뎐의말이 원래계약체결(契約締結)시에 남의일에 충성(忠誠)스러운 최석홍(崔錫洪)배경옥(裵慶玉)량인을립회(立會)케하야 치료비와위로비로(治療費及慰勞金)합하여일백오십원만 지불하면후에는무슨일이잇든지라도 문데가 업기로하엿슴으로 이제 다시 치료비를보조치는 못하겟다하매 부득이당조 계약내용을 아지못한부형은 불하한 김영조는 할수업시고만두엇다더라(포항)

浮浪쇠테自殺

쥐잡는약을먹고

지난십사일은 음력정월 초이튼날인데 도립수원병원(水原病院)에서는 젊은송장한아를 치게되얏다는데 그자는 수원서신면궁평리(水原西新面宮平里)정인규(鄭寅奎)란부호의 아들정재현(鄭在憲)이란당년이십사세의청년으로 원래 마음이 허랑하야자긔부모의 속도만히 태이든바일로부터 이십일전에 자긔부친의 돈삼백칠십원(三百七十圓)을가지고서울로 도망한것을 붓드러와서나 그집으로도 가지안코수원중도려관이란본사람의려관에서쥐잡는 약을먹고번민하는것을 곳병원으로다려다가 응급치료를하엿스나 마츰내죽어 버렷다더라(수원)

巧妙한少年窃盜

범행이엇정나게만타

귀보=개성원뎡(開城元町)에사는 데ㄱ송도보통학교교원 하채청(河采成)씨집에소년절도가드러가서 학교에서 신부볼은것가더무미며 대인후 의복한벌을교묘히가지고 다라낫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이소식을 접한개성서에서는 그간 범인을테포코저 비상한활동을한결과 드듸여그진범이테포되여방금엄중한취됴를밧는중이라는데이자는남산뎡삐번디에 주소를둔 김영관(金永觀)(一六)이라는소년으로서

범죄사실이 전긔외에도 지난십일월오일오후 두시경에 서본뎡이백팔십구번디 예사는 리뎡숙(李貞淑)이라는 녀자가 인천행차표를사고자 개성뎡거장에서 머뭇거릴때에 자긔가 사주마 하고교묘한 수단으로 일장권한장을사준후 일원칠십전을 사긔한것을 비롯하야 일월이십구일오후두시경에 개성데일공립 보통학교교원용무식(龍武植)씨의집에가서 하채청씨의 의복한벌을 돈수단머로 의복한벌을 절도한것과 이월구일오후세시에 남산뎡김관형(金觀衡)이라는사람의집에가서 역시의복한벌을 절도한것등여러곳에서범행을하야권부를건은 면당상히여 가지고유흥에소비하야바렷다 는사실을자백하얏다 더라(개성)

水組工事로 舒川全郡에交通不便

주민은당국을비난한다

충남서천(忠南舒川)은지난십일월부터 각처의교통이 거의두절되어서 일반행객이 던허정슬뿐아니라 자동차까지 불통되엇다는데 그원인은작년십이월이십삼일부터 금년일월경까지 쉬지안코퍼붓는눈(雪)이 싸인데다가 최근에 수리조합(水利組合) 공사를시작한까닭이라는데 그곳주민들은 일개수리조합공사를 위하야 일반의교통을 도라보지안는당국을심히비난한다더라(서천)

金氏一年懲役

공주법원에서

두보안바와가티상해죄로오래동안심리를밧든 보녕(保寧) 김능시(金德時)에대한관결은지난십삼일 공주디방법원 데일호법뎡에서 영뎐(永田)판사로부터 징역일년을 언도하엿는데 김씨는 불복공소하엿다더라(공주)

誣告하고被捉

혐의로무고하고 경찰에테포되여

강원도 울진군온정면선구리(江原道蔚珍郡溫井面仙邱里)안일원(安一元)은멧칠전에동연히당디경찰서에인치취됴중이라는데 그내용인즉 작년칠월 홍수때에 권귀 안비원니가 고동리손창석(孫昌石)과 무슨일로 쟁투를하다가 필경은안비원이가 처벌와지당하엿는바 그후 안일원은항상그원엄을품고 오든중 지난일월경에『손창석은 자긔의선부의분묘가잇는 공동묘디에서 비밀히 그선부의시테를파내어 다른곳에 암장한후 공동묘디에는빈무덤만남기엇다고』허위고발을한 사건으로 그와가티테포취조중이라더라(평해)

金浦黔丹面에 橫行하는大賭博團

제지하라는사람을구타까지 주민들은경찰의태만을비난

김포군검단면 당하리(金浦郡黔丹面堂下里)에서는 작년가을이후로도박이 성행하야 매일이삼십명식 몰려다님으로 부근일대는도박시장으로 화하야 그곳주민들은 불안중에 싸히엇다는데 원래 그곳은 부천군 서곳면관내와 린접한곳일뿐아니라 교통이불편하야 순사들의왕래가 희소함으로 그와가티 도박이성행한다는데 지난구일에도 그곳모의집에서 이십여명의 도박단이도박을하는것을부근에사는집모외 이삼인이발견하고 노름을 제지하기 위하야 김모가먼저밧게잇든오종동이를 돌어다가 노름군안진방에 드리부어서 일대수라장을 일우엇다가 마츰내 제지하러갓든사람측과 충돌이되어서 제지하러갓든 사람측에서구타까지당하고도라왓다는데 부근주민들은 그곳경찰의 태만함을비난한다더라(김포)

黃州에火災

삼호가전소 손해천여원

지난십사일 오후구시경에 황주군겸이리(黃州郡兼二里)우석후(禹錫厚)집에서는 불이 나서 그안집김유평(金有平)의안채와 김광채(金光彩)의집까지전소되엿다는데마츰맹렬한바람이불어 부락으로황주소방대의진화도 로력도슐데업시 되고 마럿다는데손해는 일천오백원가량 이며 실화된원인은 아직됴사중 이라더라(황주)

一夜六處에火災

십사일밤에평양부내에서

지난십사일오후일곱시반경에평양부차관리(平壤府鈑貫里)사십사번디최득선의집을위시하야경재리(鏡齋里)일백팔십오번디김창련신창리(新倉里)팔십팔번디홍고서경재리(鏡齋里)이백구십칠번디최봉오설암리(薛岩里)이백륙십이번디리한덕대찰리(大察里)륙십번디 데이동양정미소리재순등여섯집에서불니이러나 소방대(消防隊)는밤을새여가며 진화한결과 다행히 손해는만치안엇스나 일반시민은 일시불안중에잇섯스며 출화원인은 아직까지미상하다더라(평양)

『모히』中毒者가 强盜化

필경은발각데포

전북정읍군(全北井邑郡)정읍면 련지리(井邑面蓮池里) 박상만(朴相萬)은수년전부터 모히(모)중독자로서 결국은 강도질을하다가 메칠전에 정읍경찰서에잡히엿다는데 그범행을드른면 동면하모리(同面下茅里) 리윤오(李允五)씨의건방에가서칼을참에다 푹씨르고 피존세갑과돈이원을 강청하야어더간후 그이튼날조커녀에는 동면상평리(同面上平里) 원신긔리(元新基里)에가서집집마다다니며문압헤버서논고무신을거두어

한가마니 를만든후그가마니를그동리압공동통에다가꾸워노코거는바로그아래마을김윤명(金允明)의집에가서무엇을청한든중인데 전긔 신긔리에서고무신잃은사람들이 일제히 나서서 그공동통에서 고무신가마니를 발견하자 그아래김윤명의집에서는 도적드럿네하고 웨치는소리가나매 고무신차진

사람들은 일제히그놉집어리하고고향을친바라상만은날쎄래여그만자긔집으로다라낫다라압헤서순사들이오는고로박상만은더욱놀래여손에드럿든칼을뒤로내여던진바 철컥소리가 나매순사가운데빼채고 데포취됴한결과 칼이란것은 며로만들고거죽에는 납조희로부친것인데 그자리에서 포박하야 동군경찰서에넘기엇다 더라(정읍)

貫鐵洞小火

시내관철동(貫鐵洞)일백십사번디삼산(杉山)「스이」의 집에서 십사일오후여덟시반경에 출화하야 목사십오분에진화하엿는데원인은화로불이방바닥에옴겨부터서그리된것으로 손해는 오십원이라고

宣川東面普校에 寄附土地問題

비난방는면씨

귀보=평안북도 선천군 동선로하동(平北宣川郡東面路下洞)던영수(田永受)는 그면 보통학교설립에대하야 그동리 남산서숙(南山書塾)의 긔부 토디를친족일이인과 의론한후 매가로 출부하자하고 현금도 지불치아니할뿐만아니라 수학까지 덤령하야남산서숙을 폐지케 하엿다는일도그서숙에 관계하는 제원들간에문데가되여잇다더라

구경다니다가

아이일허버릴번

지난십사일 오전열한시경에 개천군우리(价川郡隅里)에는모파가 아이를일코 울면서 시내를배회하니가잇섯다는데 이케 그자세한사실을들은즉 개천군북면 룡담리(价川郡北面龍潭里)에잇는 최성녀(崔姓女)(貺)가 정초입으로 고읍구경을하려고 셋재아들박긔순(朴基順)(一〇)을다리고 왓다가 시내 뎡거장(停車場通)에서 아이를일코헤매이든중 동면원리(同面院里)에사는 김희연(金熙淵)씨가차저주어돌려보냇다더라(개천)

電車에重傷

빈빈한뎐차사고

시내냉동(冷洞) 일번디의 최동호(崔東浩)(三)는 십오일 오후열한시경에 술이잔뜩 취하야 창신동(昌信洞)압 뎐차정류장에서 뎐차를타고자 하다가뎐차와충돌하야 중상을 당하엿다 하며 그날자녀에 현뎌동산(峴底洞山)이번디의 오심상(吳心相)는 송병학(宋炳學)(三)이란로인도 서대문뎡이뎡목 십칠번디 압뎐차길을 지나다가 뎐차에치어중상을당 하엿다더라

辻井氏의 講演禁止

종로경찰서에서

수재동포에게 오는 동정금을가지고 멀리바다를 건너온십정민지조(辻井民之助)씨를청하야긔근구제회에서강연회(講演會)를 종로청년회관에서 개최코자한다함은 루차본지에 보도한바어니와 소관 종로경찰서에서는돌연이강연회를 금지하야 부득이 중지하게될 모양이더라

基督青年少年部 新春音樂大會

오는이십일에

종로에잇는 중앙긔독교청년회소년부(中央基督敎靑年會少年部)에서는 그부의주최로오는이십일(토요일)오후일곱시반부터 그청년회관에서데오회신춘음악대회(新春音樂大會)를 열터이라는데 당일출연할 악사들은모다 악단의일류들이며 입장료는 일원이라한다

忠南禮山의 農校火災後報

십삼일부터교수 타지안은교실에서

귀보=이월십일밤오후열시사십분경에 례산읍내에잇는 충청남도공립농업학교(忠淸南道公立農業學校)의화재는소사실면뭉의 벽관(壁板)이 접속(接續)되여 그열도가 그곳에전하야그와가티 출화한모양이라하며 례산삼교리와 주교리 신례원의사개소소방대가 출동하야 그이튼날 오전당시이십분경에 간신히진화한바 원교실은 전소가되고 긔숙사장실급작업실(寄宿舍室及作業室)은 근근보존하야 그곳에서십삼일부터인녹하야교수하는중이며 기타의교원과 생도는 한사람도부상자가 업슴으로불행중 다행이오 금번에소화된교실은 이만오천원의 화재보험에 드럿다더라(례산)

麗水를騷亂케하던 大竊盜犯遂逮捕

일개월동안에근이십차범행

전남려수군읍내(全南麗水郡邑內)에서는약일개월전부터 절도범이횡행하야 지금까지 계속하야밤마다 발생하다십히하야 그피해가 막대함으로 일반주민은실로공포에싸히여 소란케되엿스나 경찰당국(警察當局)에서는 한명도 잡지못하야 큰두통이든바 류,리량형사(劉,李兩刑事)는만약오일동안에 그범인을 테포치못하는때는 사직(辭職)하기로 서약을하고 최후극력 활동한결과 지난구일에비로소 두형사의손에 걸거되얏다는데 그범인은경남 남해군서면갈금리 정태화(慶南南海郡西面葛金里鄭泰華)(三)로판명되얏다 더라(려수)

鐵石肝腸이라도 눈물이날이慘劇

열살이채못된남매두아이가 어머니를여이고갓난동생을 포대기에싸가지고울며방황

지난십이일은 음력으로 섯달금음날 이엿다 그날이 별다른날은아니지마는 우리조선에서는 아즉도습관상으로든지 또는여러가지관계로든지 누구를 물론하고과세준비에 분망하지 안흘수업섯슬것이다 더욱이 제이개성(第二開城)이라는 별명을 듯는 안성(安城)으로 말하면 사실에 조금도 손색이업스리만큼외국인이적고 또는 그세력이빈약함을따라음력과세의 긔분이 매우농후하엿다 그날아츰부터 세찬을교환하는 갈비작뫼마리 굴비가각

골목을 메이리만큼연락부절하고 집집마다 음식작만하는 기름냄새가 측비하야도처에 풍성풍성한것가텃스며아이들은 찬란한 설빔옷을 입고일가또는 이웃집에 묵은세배를 다니노라고자긔 아버지의 손목혹은어머니의 손목을 붓잡고때를지어서 가로 왕래하는 광경은실로완연한락원이엿다 그중에 만일아비도업고 머미도업시 무의무탁한 혈혈고아가잇서 그를본다 하면 물론의복음식도 부럽지마는

부모의 손목을붓잡고왕래하는그들의화평한가뎡이더욱부러울것이다 아 고로지도못한세상 전동포가 이와가티안락을 얼구는 그날오후여섯시경에 안성읍내마마비지 련주교당(天主敎堂)대문밧게는 출생(出生)한지 칠일도 못되여보이는 갓난아이를떠러진 걸레쪽에 싸서안고비봉산으로 넘어닥치는 쌀쌀한눈바람에 못견듸여

수족을 발발떨며안성경찰서(警察署)를 차저어둠 침침한비빈관길로 나려가면서 애성통곡하는 십세남짓한 아이한아와 팔구세쯤된 계집아이 한아가잇섯다그비참한 경상은 목석일지라도동정의눈물을흘리지아니할수업섯다 그아이들은 안성읍내장긔리(場基里)사십륙번디 박대근(朴大根)의집 것밧에잇든 방금

열두살 된박순만(朴順萬)과 그의누의동생인 아홉살된박순계(朴順彬)의남매로서 그의부친은 얼마전에 곤궁한생활을 견듸지못하야 사랑하는 처자와 떠뜻한 고국을리별하고 멀리쓸쓸한 북만주벌판으로 돈벌이하러 한번떠난후로는 소식까지영영돈절하엿스며 그의모친은잉태(孕胎)의 원인인지 작년오월경부터 신음신음 알키시작하다가 구십월경에일으러서는 아조

병석에 누어조금도동작을 못하게되얏다 그러나 서발막대 거칠것이업도록 가난한 그의살림이라 약한첩 한처라도 연명할길이 막연함으로 어린순만은 하는수업시일시라도 떠나기어려운 병석에누은 모친을두고 남의집에가서 심부름을하야주며 순계는 이웃집아이를보아주고 둘이 번차례로밥술과

돈푼을 어더다가병석에서 고통하는모친을 공양하며 무서운삼동을 참혹한긔한에 싸히여 지나오든중 설상가상으로 병석에잇든 그의모친이 지난오일아츰에 아이를나코 동날오일저녁에 마츰내 이세상을참혹히 떠나고말엇다 이미이세상사람이 아닌 그시테는 이웃집사람의 동정으로 북망산한모통이에 안장하엿스나 포대기속에서 젖을찾고우는 갓난아이의정상과 순만의남매의 우는광경은 참아보기어렵게 참담하엿다

그러나 순만의남매는이아이를 귀여운동생으로 밤낮쉬안고 종일토록 집에안졋스며 순만은 밤을어더다가 아이를싸

여러집에동냥을하야 쌀한되를모하가지고이것을팔어설당을사서 옥쾌밥에다타서먹여가며무한한신고를하엿다 이경상을본 이웃집

사람들 은순만남매에게 양관(즉련주교당)에서 이런불상한아이를 찰길러주니 아기를 갓다주라고 권고함으로 장차엇지할수업는 순만남매는 하는수업시 눈물을흘리며 갓난아이를 강보에싸서안고 련주교당을 차저갓다 그러나 동정이라는것은 세상은 다시그들로하여금 쓰린가슴을움켜쥐고 절망의 길에서 헤매이게되얏다 련주교당에서 경찰서로나

가보라 는한마데의거절을바든 순만남매는 컨디가아득하야 엇지할줄 모르다가하는수업시 그집머문밧을 다시나서서 경찰서를 차저가게 되엿다 그때는컨에말안바와가티섯달금음날이다 시가를 메일듯한의복음식이괴한의 주린순만 남매로하여금무한한늣김을 주엇다 갓난동생을품에 안고어린

누의를 [illegible]면서빙관길로 나려가는 순만은부모의손목을 붓들고 깃붐에넘처서 묵은 세배다니는아이들이 더욱부러웟다『남들은 부모가잇서 커와가티하는데 우리삼남매는 이것이두는팔자인가』하는순만의생각은 다시 그의 주린몸으로 대성통곡을하게하엿다 이와가티 통곡을하면서도 강보에싸인동생이 불상하야 한시밧비구호하여 줄곳을차저달려가든

순만은 즉시경찰서에도착하엿다 그때에동서에 당직으로잇든삼옥경부보(森屋警部補)는 이가련한정상을보고 무한히 동정하면서 될수잇는데까지 구호하여주겟다고 승낙을한후 우유(牛乳)한홉을사서 주어보내엿다 순만남매는 즉시그우유를 바더가지고 쓸쓸한빈방으로 도라와서 항상우름으로 주야를보내며 그

우유로 써오날까지약사일동안은 갓난아이의 생명을유지하여왓스나 장차그들 삼남매의운명은 엇지될는지 실로뜻잇는사람의 창자를 끈케한다 (안셩일긔자)

회파람

◇基督青年鄕櫃大會 종로중앙긔독교청년회에서는 십칠일(수요일)오후일곱시반부터 그회의 치원처사대회(會員鄕櫃大會)를 그회관안에서열터이라는데 회비는오십전이라고

▲개성에서는 채귀(假鬼)가무서워서자긔손으로칼을들어자긔손을란자하고 강도를맛낫다고한녀자가한아잇서 경찰서에서는 강도범을잡고자 대활동을하다가 헛물을켜고▲필경에는권과녀자의거짓말인것이 판명되얏다한다 경찰서에서는 허위신고를 하얏다고 그녀자에게 어떠한처분이 잇겟지마는 ▲채귀가얼마나 무서우면 그약한녀자로서 자긔손으로 자긔살을 함부로 란자하얏스랴 그와가튼 참극이 생기게한채귀는 법률상아모책임이 업는가

◇取消申請 貴報第一八九四號朝刊第二面『本夫毒殺女가奸夫와逃走』란記事中(中略)相違가有하옵기取消하기를申請함

大正十五年一月三十一日
全北扶安郡保安面柳川里
申請人 宋元直㊞
朝鮮日報社 貴中

滿洲踏査(37)

李涵

一月廿七日부터三十一日外지 五日間은 몸이疲困하여서獨立河에서留宿하며身體를調養하엿다 中東線의烏吉密河站南이며 北이며 吉林省의東 額穆縣의西北이며 吉林省濱江道管轄인五常縣과 舒蘭縣方面에同胞들이 들어사는 情形을들어보니原來 五常과舒蘭는 새로여헤前에된縣이며 幽僻한地點이기때문에 同胞들도二三年來로 移寓하기시작하야 한곳에一二戶로부터 十餘戶外지 散在하는바 五常에서 北으로中東鐵路의烏吉密河站과 楡兒山站等이數百里가되며 西南으로吉林城이四百里나되기때문에交通이매우不便하야 大發展이되기는어려우나 土地는매우肥沃하고肥沃하다고한다 五常全境에는 同胞가五十餘戶이오 舒蘭에는縣街에만 十二戶가잇다한다 이제그散在한地點을말하면 額穆縣에서西쪽으로一百二十里되는 額勒河(어리허)를起點을삼고 北으로七十里되는李家岔이란곳에 十戶가잇고여긔서 北으로七里되는新開地西溝란곳에 四戶가잇고 이곳에서 北으로二十里되는濠土山子란곳에 一戶가잇고 여긔서北으로七十里되는 四個頂子『쓰거딩즈』란곳에 十戶가잇고여긔서五常縣街가七十里인데 街內에七戶가살고 濠土山子에서西北으로四十里 五常街에서西으로二十里假量되는 小城子란地點에 十戶가살고 小城子의西北으로三十里되는 佳濟溝에西北으로五十五里되는 下西河子(쓰시허즈)에 五戶가잇고여긔서西北으로五里되는 小楡樹河에 五戶가잇고여긔에서西北으로 一百里를가면 楡樹縣인데 昨年에처음으로同胞二十餘戶가寓接한다하며 加里河子에서東으로八里되는 加里河子에 一戶가잇고 여긔서갈돌이되여 北으로 十五里되는大蔵子에二戶가잇고 東으로四十里되는 鹹地窩(선되영)에 五戶가잇다하며 五常縣에서北으로 八十里되는 沙土河子(쓰투허즈)에 一戶가살고 여긔에서北으로二十里되는 報恩河에一戶가잇고 여긔에서北으로 九十里를가면 烏吉密河站에到着하는것이라한다 五常縣境內에 우리의小學校가한곳도업다한다

아!이러케 漠漠한北陸에도 異域의名稱을듯는 地方에外지 一戶二戶가 草萊를闢하고荒地를開하야 한곳두곳식 水田을하는것은 어느有力한國家에서는 그러케에서도不可能한것이事實인데 우리同胞들은 아모後援업시 아모實力도업시 빈주먹만들고도 못가사는데가업스며 안가잇는데가 업는것은 무슨方面으로생각하며 보아도 異常한일이아니라 할수업스며 氷山雪海인北陸到處에 白飯이허여진것은 天意인지?人工인지? 참으로十餘年前外지도不可思議엇다

二月二日은獨立河의北으로十里되는 樺樹溝(一名花水溝)에 到着하엿다 이곳도내가 갈때에 들렷던곳이다 近日에花水溝韓人村에서南으로八里假量을내려가잇는 中國人의土地들이 地方에서는처음으로 同胞郭宇明氏가永買하엿는데 熟地가二十晌이오 荒地가十六晌이되는것을 金貨九百元에 샀다한다 熟 荒地를合하야三十六晌인즉 七萬二千餘坪인데 九百元이면참으로싼갑이다 熟地二十晌만먼저 水田을만들어서 秋收하면稻子四百石이날것이니 每石에十元식만價格을치드라도 四千元이며半作을주어서 절반만가저도 二千元이될것이니 當年에발서 곱장사가넘고도 土地는그비로 空得이된다 朝鮮內地에서 돈량이나가지고 二三分利子따먹는 장사를하노라고 애를쓰며 분주하다가도 엇다하면本金外지白失하는 同胞들은一千元만 가지고 이영에와서 土地를산스면 足過平生을 할것뿐아니라 無衣無家한 同胞들을얼마식救濟外지라도할수 잇는것이어늘井蛙의 所見으로 조고마한울안에서 그보다 더큰것이 업는줄알고잇스니 一邊으로可憐한생각도난다

二月三日은花水溝에서東南으로五十五里되는 新塔拉站이라는地點에到着하야잣다 이곳도갈때들렷던곳이다 벼를이저외지앗지아니하고 둥그러코놉흔벼가리가그냥잇는것을보고 처음에는農夫들이게을러서秋收後에곳打作을아니하고 이럿케잇다고생각하엿더니 그理由를農夫들에게물어본즉 陰曆歲後에는 依例히稻子갑이오르는것인즉 正月에打作하야벼를放賣하면 利益이만타고한다 그런데 秋收後에即時打作을하야눅은갑으로 판다하면그金錢을가지고 特別히營利할것도업시거저이럭저럭업서지고 마는것이니 차라리벼가리를그냥두는것이上策이라한다 이것은純全히經濟가 發達이되지못한上古時代의이약이를듯는것과 한가지나天眞的生活이라고볼때에는또한불어운생각도난다 이곳은겨울에도어름구녁을 뚤고고기를만히잡아내어서 生鮮국을끌여 먹으며 고사리를말려서만히두엇다가冬間에饌用을하는터이다 집마다 산양총(銃)을한자루식두고 들판에노다케덤히는 꿩(雉)을每日四五마리식잡으며 山에서뛰펄뛰는 노루(獐)도한달에 한두마리식잡으매 此亦快活한丈夫의 理想的살림사리라 아니할수업다 五連發銃도 한村落에 한자루식은잇는심인데이것은 곰(熊) 뫼돗(山猪)사슴(鹿)等을잡는것이다 大震國넷터에 三人이一處를當하던 우리의歷史를새로보는듯하다

祝朝鮮日報發安支局發展

水原郡三槐公立普通學校 訓導 田宗平 朴根序 黃[illegible] 閔昌[illegible]
水原郡揚甘面南陽里 [illegible] 淳
水原郡八灘面梅谷里 李錫永
水原郡八灘面梅谷里 有志青年 金鍾萬
水原郡長安面 事務所一同
水原郡長安面 司法代書人 李相[illegible]
水原郡長安面 面長 李鳳鎬
水原郡長安面蘆眞里 青年實業家 文德仁
水原郡鄕南面發安里 鄕南理髮館 主任 崔昌圭

水原郡鄕南面事務所 職員一同

水原郡八灘面事務所職員一同
水原郡鄕南面發安里 濟生醫院長 金懋經
水原郡鄕南面發安里 行政代書業 李裕根
水原郡鄕南面發安里 金融組合 尹興業 田殷合 金定得 李龍根
水原郡揚甘面事務所 面長 李光雨 會計 韓琪錫 書記 韓瓚錫 書記 柳元珪 書記 韓丙洙 書記 沈相敦

朝鮮日報間島銅佛寺分局發展

間島銅佛寺 朝鮮人民會
間島銅佛寺 共進學校
間島銅佛寺 中外醫院 院長 李允河
間島銅佛寺 延生病院 金舜鳳
間島銅佛寺 濟生醫院 金聖奎
間島銅佛寺 天道教宗理院 崔允
間島銅佛寺 圖書販賣 石版印刷 文化書院
間島銅佛寺 唐草材貿易商 昌生堂大藥房 主任 許玄東昌 八淳
間島銅佛寺 裵吉彦
間島銅佛寺 官鹽支店 金仁三
間島銅佛寺 鄭始永
間島銅佛寺 博仁堂藥房 洋藥醫療器械商 金炳南
間島銅佛寺 警察官派遣所 全鳳煥
間島銅佛寺警察分署 廣永吉
間島銅佛寺 興氣商店 吉表浩
間島銅佛寺 文川旅館 黃成夏
間島銅佛寺耶蘇教會 牧師 崔大鎭
間島銅佛寺東明學校學院 茂柱商店 宋文玉商店 姜成商店 東興旅館
間島銅佛寺 美明

間島銅佛寺 崔子五商店
間島銅佛寺 李容淳
間島銅佛寺 元山旅館 李殷基
間島銅佛寺小北溝 方翼定
間島銅佛寺 富春洋行出張所 李超珵
間島銅佛寺共進學校 安基
間島銅佛寺 天義 主任 李松東
在間島日本帝國總領事館銅佛寺警察分署 崔煥鴻
間島銅佛寺 許榮基 李昇申 李元東 李光勵 雨慶

從來로全羅北道井邑市場의特産物인本紵布也라本人은年前부터漂泊業을一層改良하야潔白과堅實을爲主하며錦紵布直賣業을兼行하야代金引換에는小包料만先送하시면迅速酬應하야遠外의信用과顧客의便利를務圖하오니四海僉位는隨時愛顧하심을望함
全北井邑市內長明里一三二番地
共盛屋漂泊業主 任文鎬 告白

確實有利 洋襪業 織組機械

◎家庭事業 多利多實은洋襪織造가第一
○製法簡易로五六日이면能通
○教授親切과機械販賣는本所
○詳細案內書無代進呈
大邱府明治町(南門市場入口)
大邱洋襪機械製造販賣元
羽票洋襪機械直輸入販賣
商標 大邱洋襪所
主 禹且學